



강요배의 '비가 온 정원' (2021). 대형 회화 작업으로 작가의 붓질로 생겨나는 소리와 파도, 바람 소리가 교차된다. 사진=대구미술관 제공

몸으로 발현된 풍경이 빛은 교향악

대구미술관 강요배 개인전 이인성미술상 수상 기념전 '... 마음이 몸이 될 때' 주제 대형 회화·영상·설치 작업

이번 전시명은 성육신(肉身)의 어원인 인카네이션(incarnation)에서 영감을 받았다. 작가는 내면을 이루는 생각, 사상, 이론 등이 몸에 배어 자기 것이 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임을 제목을 통해 전달한다.

출품작은 대형 회화, 영상, 설치, 어느덧 회화에 다다른 작가는 체화(體化)를 말한다. 거기엔 머리와 마음이 몸과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연과 행이 일치되는 삶이 있다. 대구시가 제정한 2020년 제21회 이인성미술상 수상 기념으로 이달 13일 대구미술관에서 시작된 강요배 개인전이다.

‘수풍교향(水風交響)’, ‘처려쳐라’, ‘바비가 온 정원’ 등 대형 캔버

스 작업 안에서 아크릴이 묻어 나오는 붓질에는 작가의 몸짓(액션)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소리가 바람, 파도 소리와 교차된다. 작가는 이 과정에서 영상 매체를 활용해 자연의 생생한 숨소리를 붙잡는다. 작가의 회화 작업에 중요하게 자리하는 민중 의식을 드러내는 작품도 나온다.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예술가 이인성의 작품을 오마주한 '산곡에서', '어느 가을날' 등으로 대구 10월 향쟁, 경산 코발트 광산 학살 사건을 불러냈다.

전시는 2022년 1월 9일까지. 개막행사는 11월 4일 이인성미술상 시상식과 함께 치른다. 전신회기자 sunny@ihalla.com

아이들 눈높이 맞춘 신들의 이야기

한그루 어린이책 잇단 출간 김란의 '신이 된 사람들' 등

부모님의 눈을 뜨게 한 가문장, 씨앗을 뿌리는 자청비 여신. 제주 섬의 역사와 흘러온 신들의 이야기에 좀 더 일찍 눈을 떴다면. 자기 앞에 놓인 운명을 당당히 개척하는 그들의 용기를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아이들을 주 독자층으로 신화 등을 담아낸 제주 작가들의 동화, 동시집이 제주 한그루출판사에서 잇따라 나왔다.

'신이 된 사람들'(김란 글, 김진희 그림)은 '신비로운 제주 신화 이야기'란 부제를 달았다. 평범한 사람들이 인간 세상을 지키는 신이 되기까지 그 여정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려냈다. 1만5000원.

'도깨비 방망이는 어디로 갔을까'(김정애 글, 홍가람 그림)는 도깨비 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동화다. TV, 세탁기, 벵타이 등 전래동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소재들을 등장시켜 오늘날 도깨비가 살아있다면 어땠을까, 방망이로 원하는 모든 걸 가

진다면 마냥 행복해질까란 질문을 던진다. 1만5000원.

'마법을 부리는 지구별'(김정숙 글, 그림)은 기후위기로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의 문제를 다룬 환경 그림책이다. 달과 지구가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자연과 우주의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끈다. 의성어와 의태어를 충분히 활용해 낭독하는 재미도 준다. 1만5000원.

'방구 귀는 로션'(김정련 글, 김민경 그림)은 동시집이다. 사물, 친구, 식물과 생태, 가족과 사회 등 주변을 관찰하며 얻은 건강하고 유쾌한 시편 50여 편을 만날 수 있다. 1만2000원. 전신회기자

'아랑조을 클래식' 운영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지역 연계 음악 프로그램으로 '아랑조을 클래식'을 운영한다.

'아랑조을 클래식'은 10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제주시 남문서점과 까사들에서 진행된다. 월요일에는 남문서점 2층에서 '서정시와 음악의 만남'이 이어진다. 수요일과 금요일

에는 까사들에서 '클래식 음악과 인문학의 만남', '해설이 있는 오페라와 음악 감상'이 각각 마련된다. 수강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문화재단 홈페이지 참고. 문의 800-9164.

10월 전시장 오름에서 반딧불이까지

백광익·김용주·씨킴 개인전 에미킴·찰스장 NFT 작품도 강정호·정상기·오수진 사진 한승희의 '인생필라' 작품전



백광익의 '오름 위에 부는 바람'

결실의 계절임을 증명하듯, 제주 전시장 곳곳에서 개인전이 잇따르고 있다. 개인전만 40회 경력을 가진 중진에서 첫 작품전을 펼쳐놓는 작가까지 이들이 빛어낸 회화, 설치, 팟아트, 사진 등이 나왔다.

이름갤러리는 이달 20일까지 '오름 위에 부는 바람' 주제 백광익 초대전을 갖는다. 밤하늘 아래 쏟아지는 유성처럼, 때로는 폭풍 전야처럼, 쓰러지지 않는 나무를 닮은 제주인의 정신처럼 오름과 바람이 일렁이는 화폭과 마주하게 된다. 이름갤러리는 "일흔의 나이에도 왕성한 작품활동"을 벌이는 그의 작업에 대해 "시대보다 앞서가는 현대적 감각의 작품은 글로벌 시대 속 제주의 위상을 높이는 힘을 지녔다"고 했다.

백 작가는 이달 15-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국제아트페어인 키아프(KIAF) 서울에도 참가한다. 백 작가는 이번에 '오름 위에 부는 바람' 연작 등으로 제주 섬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존재이자 인간을 대자연으로 연결하는 상징체로서 오름을 시각예술로 형상화한 작품을 내놓는다.

김용주 작가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 갤러리 ICC 제주에서 '오늘도 바다로 간다'란 주제로 열 번째 개인전을 열고 있다. '새벽녘', '노을 질 무렵 땅거미가 내려앉을 때의 바다' 등 2-3개 정도의 색만 조합해 농도에 변화를 주며 표현한 작품들은 대상을 한층 선명하게 부각시킨다. 이달 14일까지.

씨킴의 열두 번째 개인전 '아이 해브 어 드림: 파트 II'는 아라리오뮤지엄 탐동시네마 5층에서 진행 중이다. 필름 카메라로 촬영해 인화한 사

진 연작을 비롯 회화, 일상에서 수집한 버려진 오브제 등을 활용한 조각, 설치 작품 등이 나왔다. 2022년 10월 16일까지 이어지는 전시다.

작은 생명들을 예찬하고 그들에 대한 존중을 호소하는 작품을 제작해온 에미킴 작가는 아홉 번째 개인전 '스피릿 에브리웨어'를 준비했다. 부미갤러리에서 이달 22일까지 펼쳐지는 전시로 절반이 넘는 디지털 작품은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로 발행돼 메타버스 갤러리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팟 아티스트 찰스장의 '로보트 태권브이 월경에 오다' 주제전은 월경아트센터에서 볼 수 있다. 회화 10여 점과 NFT 작품 3점으로 구성된 전시로 11월 30일까지 계속된다.

강정호 사진전 '제한제주'는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문예회관 3전시실에서 열린다. 동명의 사진집 출간에 이어 전시장에 작품을 풀어놓는 자리로 추사 김정희가 제주 유배 시절 남긴 '제한도'를 모티브로 관념이 아닌 실제 풍경으로 돌담에 하이얀 눈이 쌓인 추운 겨울(제한)을 담았다.

'한라산 붉은겨우살이'로 도내의 전시를 이어가고 있는 정상기 작가가 이번엔 김만덕기념관 초대를 받았다. 한겨울 추위 속에도 서로 돕고 상생하며 살아가는 붉은겨우살이의 모습을 김만덕의 나눔, 공존과 연결



에미킴의 '기계 인간이 되다'

시켰다. 11월 5일까지. 오수진 사진전 '루다의 반딧불이 이야기'는 이달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서귀포시 이충섭 거리에 있는 '궁정동 카페'에서 개최된다. 오 작가는 꽃자왈을 누비며 촬영한 반딧불이를 통해 어릴 적 동화의 주인공 같은 장면을 보여준다.

한승희 작가는 종이, 나무, 흙을 재료로 글씨의 평면성에 입체감을 더한 작품들로 10월 한 달 동안 뿔뿔도 갤러리카페에 첫 개인전을 꾸민다. '인생필라(人生筆樂) 2021'이란 이름 아래 제주어를 모티브로 글씨, 서각, 도예 등 30여 점을 출품했다. 전신회기자

5인 5색 동요 편곡 연주회 제주체임버 '불후의 편곡자'

서귀포 김정문화회관 상주단체인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가 동요 편곡 연주회를 펼친다. 이달 16일 오후 5시

에 열리는 '2021 나는 불후의 편곡자' 주제 공연이다.

TV 쇼 형식으로 준비된 이날 공연은 문호진의 '반달', 조안나의 '신데렐라', 김수하의 '나비야+학교중', 김베드로의 '작은 별', 오민주의 '피노키오' 등 동요를 주제로 한

5명의 작품을 연주하고 청중들이 해당 음악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성중 기획자는 "도내 편곡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제주 편곡 음악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관람료 무료. 문의 760-3792. 전신회기자

**콘크리트 먼처리
콘크리트 폴리싱
세라믹 폴리싱
테라조 연마 광택**

에폭시/우레탄 도막제거

아직도 공장, 주차장, 사무실, 쇼핑센터, 물류창고 등 바닥에 에폭시나 타제품으로 시공하고 계십니까?

선진국형 친환경 마감공법인 콘크리트 폴리싱 시공으로 한 번에 영구적 바닥 해결!

신화역사공원 YG
대형 상가매장
월정리 카페

표창장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이사장 직책회

귀하는 자조자립협회의 활동조항 실천을 표인함으로써 실천하여 소상공인 활동조항 실천화 및 경제적 제고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주식회사 제라콘 박영

제주대 중앙도서관 도끼다시바닥

세화카페
우도농협하나로
스트라이크볼링장
함덕 유드림 식자재마트

**강한 내구성, 친환경 시공, 쾌적한 표면, 작업환경의 개선
저렴하고 용이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한 안전 바닥재**

HTC SUPERFLOOR™
콘크리트 바닥재의 새로운 혁명!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주식회사 제라콘
☎ 723-3090 010-5678-2586

냉동창고 콘크리트폴리싱
영상미디어센터
종달리 카페
동아타운 물류센터